

# 이불봉사 10년... "믿음도 부풀어요"



## 신행현장

### 봉천동 소림선원 보현회 자비활동

"내 이불은 제일 이쁜 걸로 만들어 줘" 한 할머니가 솜이불을 바닥에 펼쳐려고 하는 임지오심(65·서울 봉천동)보살에게 재촉을 한다.

"알았어요, 옆에 와서 자꾸 보채지 말고 밖에 나가 노시고 계시면 이쁜 이불을 만들어 드릴게요."

임 보살이 할머니를 달래보지만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심술병을 부리지만 한 채 곱짜도 하지 않는다.

16일 오전 9시, 82명의 의지할 데 없는 어려운 노인들이 모여 사는 성남 자광원, 10여명의 보살들이 바쁜 손놀림을 하고 있다. 후원자들이 보내온 솜이불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인 요와 이불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며 금강신심을 자랑하는 보현회 회원들은 서울 봉천동 소림선원(주지 봉진)을 찾았다. 이들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이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10년간 어김없이 자광원에서 이불 손질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현회원들이 이불손질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은 어르신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이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솜까지 젖으면 버릴 수밖에 없어 자광원에서도 이불 봉사자 제일 절실하다.

인 백운익(49·서울대 교직원)씨, 솜이불을 방바닥에 깔고난 후 바늘귀에 실을 넣고 있다.

"남자가 무슨 이불 손질을 하나 구요? 재래식 솜이불이 무거워 이불 옮겨주고, 눈이 잘 안 보이는 보살을 위해 바늘귀에 실을 넣어 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

백 거사의 환한 웃음 속에서 유머가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백 거사에게 실견 바늘을 건네

## 매월 셋째 일요일

## 100여명 자광원

## 솜이불 손질 '구슬땀'

받은 민 관도심 보살은 한울한울 바느질을 시작한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는 민 보살은 능숙하게 요와 이불을 만들어 낸다.

"솜을 들으면 재재가 날 정도로 먼지도 많이 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바느질을 하다보면 몸은 피곤하지요. 하지만 할머니들이 내가 만든 이불을 덮고 어린이



◇소림선원 보현회 회원들이 자광원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있다.

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피곤이 절로 사라져요" 민 보살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는다.

한 할머니가 솜을 뜯고 있는 정심사(61·서울 화곡동)보살 옆에서 들그러머리 가위질을 구경하고 있다. 전 보살은 잠시 가위를 놓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내가 만든 이불 덮고 자니까 좋아?" "응."

진땀처럼 내뿜는 전보살의 따뜻한 마음 때문인지 할머니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번진다. 전 보살은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를 잡은 손에 힘을 준다.

보현회 회원들은 봉사뿐만 아니라 신행활동도 열심히 한다. 매주 소

림선원에 나가 일요일법회를 보고 있으며 매달 8일 방생법회, 초하루 법회, 18일 지장법회에 꾸준히 나가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보현회장 최 심심화(55·서울 성수동)보살은 "회원들 가운데 직장인이 많아 일요일이면 쉬고 싶고 가정일이 많아 할애할데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때까지 이불 봉사를 계속 하겠다"고 바늘 끝에 손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실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생태적 삶의 출발선 '생명의 진실대로 사는 것'

요즘 대안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되짚어 보면 어느 한때도 대안운동을 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 대안을 붙잡고 마련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 환경, 생태, 생명이 화두가 되는 시대인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 생태 생명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 삶에 대해 불안해왔고, 그래서 고도의 경제사회를, 산업화된 거대 도시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법스님  
인드림 공동체 대표

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눈볼 수 없습니다. 진실에 눈뜨지 않고서는 진실에 맞는 길을 갈 수 없고, 진실에 맞는 길을 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길도 길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토대가 구축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대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에 맞게 생명의 진실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답입니다.

## 진실은 무엇인가

## 끊임없는 자기성찰

찾는 것만이 마치 시대 구원의 길인 것처럼 떠돌아다녔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발상과 사고 이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삶에 대한 수많은 문제와 물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 모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을 짚어서 보면 사실 하나의 물음입니다. 바로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찾다 보니 온갖 물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물음에 진지하지 않습니다.

존재의 진실에 대해 무지한 것이요, 달리 표현하면 세계(존재)의 실상(진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고,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토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끊없는 생사 고통의 윤회만 되풀이 할 뿐

## 신행캘린더

11월 29일(수)

■ 무적태동부대 호국 석립사 낙성식=무적태동부대 동종연대 군법당 호국 석립사는 오후 1시 도봉산 도선사 주지 광림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점안 및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031)835-8184

■ 천태종 재가자 동안거 입제식=천태종은 저녁 10시 총본산 구인사 5층 법당에서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동안거 입제식을 봉행한다. 동안거는 12월 29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041)423-7100-8

11월 30일(목)

■ 군승단 군승의날 기념법회=군승단은 오후 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32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48-1728

■ 진주불교회관 불교음악 한마당=진주불교회관은 오후 7시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교대중회를 위한 제 7회 '불교음악 한마당'을 개최한다. (055)747-0108

■ 범종종 창종 12주년 기념법회=한국불교범종종은 오전 11시 총본산 지장암에서 창종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3-4445

12월 1일(금)

■ 월정사 회천대선사 추모기제=오대산 월정사는 오전 11시 제 17주기 회천대선사 추모기제를 봉행한다. (033)332-6661-5

■ 불림사 백고자 법회=창원 불림사는 오전 10시 30분 파계사 유원장 철우스님을 모시고 백고자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12월 2일(토)

■ 한국불교학회 국제불교학술발표대회=한국불교학회는 오전 9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4회 추계국제불교학술발표대회 및 2000년 정기 평의원총회를 개최한다. (02)2260-3121

■ 불교음악합회 '붓다' 공연=불교음악합회는 오후 7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사단법인 발족을 기념하는 국악 교향곡 '붓다'를 공연한다. (02)904-5763

■ 깃바위 절이정진=조계사 신도회는 오후 6시 팔공산 깃바위로 철야정진법회를 떠난다. (02)720-1390

■ 한전민화회 사찰순례법회=한전민화회는 오후 4시 서울 옥수동 미타사 정수암에서 사찰순례법회를 개최한다. (02)3456-5784

12월 3일(일)

■ 감시원불자회 성지순례=감시원불자회는 여주 신복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오전 8시 30분 서초구민회관에서 출발한다. (02)721-9226 인흥부

12월 4일(월)

■ 동방불교대학 동방인의 밤=동방불교대학은 오후 5시 서울타워호텔에서 제 4회 동방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02)763-0229

## 생활속의 불교

## '내것' 놓으면 찾아오는 행복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복을 내것으로 만들어 낸다. 심지어는 제 힘으로 버려진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손에 넣기를 바란다.

그런데 웬일인지 행복은 십사리 손에 잡히질 않는다. 언제나 때 이른 봄소식처럼 먼발치에서 가물거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원치 않는 손바닥처럼 고통과 불행이 불췌 덮쳐들기도 한다.

때로는 꼭 잡았다 싶었던 행복이 어느 틈엔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어찌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낮과 밤이 갈마드는 모습을 닮은 듯하다. 왜 그럴까?

언제나 행복감에 젖어 지낼 수는 없는

것일까? 늘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늘 안전하고, 풍족하고, 사람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듯이 누구에게나 행복의 길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과 불행은 '탐진치' 즉 삼독심에서 비롯되고, 행복과 즐거움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결국 행·불행의 열쇠는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다.

'나'를 앞세우고 '내것'부터 챙기려 하면 행복 대신 불행이 방도둑처럼 소리없이 찾아온다. 반면에 '나'를 죽이고 '내것'을 놓으면 행복은 봄기운처럼 나를 감싸안는다.

행복해지고 싶거든 자기 전에 먼저 주어야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먼저 생각하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만들어라. 행복해지고 싶거든 나를 위해 땀을 흘리지 말고 모두를 위해 땀 흘려라.

행복이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의식이 사라질 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방학적인 완전한 행복이다. 가장에서는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그것은 진리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또는 예인 사이에서도 그렇다. '나'를 내려놓고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 주는 것에서 행복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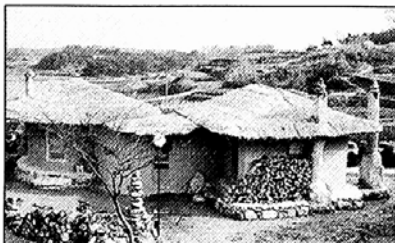
龍眼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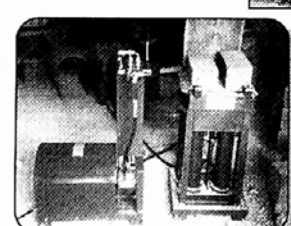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 모델 A : ₩3,800,000  
· 모델 B : ₩4,300,000

광동권 전권회사  
황토마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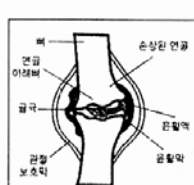
- ① 황토 주택 토굴시공
- ②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③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렸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셀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닭이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퇴행성 류마티스 통증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발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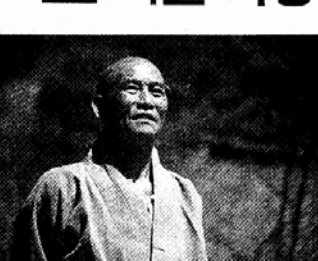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단기간 감소효과 보다는 꾸준히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남녀와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에게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 신식 권정릉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 다 더 쓰러리니까"

지금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과처럼 희귀해져서 찾아볼 수 없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권정릉의 이름이다. 신식권정릉을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약물에 권정릉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20여일간 담그고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권정릉을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레이터'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를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스님은 말한다.

"신식 권정릉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